

HEADLINE NEWS

서울의 사무실 임대료 수준은 '중상위권' (서울)

서울 중심지의 사무실 임대료가 세계 41개 주요 도시 중 16위인 것으로 조사됐다(2면 표 참조).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인 '쿠시만&워크필드(Cushman & Wakefield)'가 세계 41개 주요 도시들의 핵심상업지구 사무실(Prime Office Space)의 2001년도 4/4분기 임대료를 비교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핵심상업지구의 연간 사무실 임대료는 평당 약 156만원으로 세계 41개 주요 도시 중 1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아시아권 도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 중심지의 사무실 임대료는 東京의 38%, 홍콩의 56% 수준으로 아시아의 10개 조사대상도시 중 6위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상하이나 北京에 비해 각각 37%, 10%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금융 시장이 발달된 홍콩, 싱가포르, 東京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상하이 등 중국 도시에서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는 홍콩, 東京, 싱가포르 등이 서울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쟁도시였으나, 이제는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가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orbes, 5월 27일자)

☞ 2면에 계속

HIGHLIGHTS

도시환경

- ①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급 위해 등급별 에너지절약 효율 표시 (동경)
- ② 물부족으로 급수 제한 (타이베이)
- ③ 쓰레기 불법투기 막기 위해 쓰레기봉투 유료 보급 (독일 브레멘市)

도시교통

- ④ 관리비용 절감 위해 버스를 '적색'으로 통일 (런던)
- ⑤ 버스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카고)
- ⑥ 이용률 낮은 지하철 노선에 대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 전개 (뉴욕)
- ⑦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요금 결제 (샌프란시스코)
- ⑧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 (베를린)

사회복지

- ⑨ 박물관·동물원 대상 어린이 무료입장권 배포 (일본 센다이市)
- ⑩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도로정비조사 실시 (파리)
- ⑪ '숨겨진 빈곤층' 지원 위해 재정지출 확대 (프랑크푸르트)

행.재정

- ⑫ 定都 2,000년 기념 전시회를 지하철역별로 특성화해 개최 (런던)
- 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원하는 곳에서 찾아가는 도서 대출서비스 실시 (일본: 요코스카市)

서울의 사무실 임대료 수준은 ‘중상위권’ (서울)

☞ 1면서 계속

<표> 세계 주요 도시들의 핵심상업지구 사무실의 임대료 현황

(2001년도 4/4분기)

도시	연간 임대료		공실률 (%)
	(달러/제곱피트)	(천원/평)*	
<아시아>			
동경	87.07	4,074	5.0
홍콩	59.75	2,796	13.5
싱가포르	42.24	1,976	6.5
뉴델리	40.79	1,908	20.0
서울	33.31	1,558	9.4
베이징	30.24	1,415	12.5
시드니	26.12	1,222	6.9
상하이	24.28	1,136	13.1
방콕	9.66	452	29.0
<유럽>			
런던	94.24	4,410	5.2
파리	63.05	2,950	2.0
프랑크푸르트	53.23	2,491	2.4
밀라노	42.73	1,999	4.5
<북미>			
뉴욕(Midtown)	44.71	2,092	7.6
워싱턴 D.C.	31.60	1,478	10.1
샌프란시스코	27.36	1,280	14.9
시카고	19.92	932	11.7
토론토	16.06	751	5.6
로스앤젤레스	13.96	653	17.4
<남미>			
멕시코시티	30.31	1,418	9.0
상파울루	27.60	1,291	12.6

* 원화로 표시한 임대료는 달러당 1,300원, 평당 36제곱피트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①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급 위해 등급별 에너지절약효율 표시 (동경)

일본 東京都는 오는 7~8월에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도조절기와 냉장고의 에너지절약효율을 A~D의 4등급으로 나눠 가전제품 판매점의 견본 상품에 해당 레이블을 표시하는 것이다. 都는 국가가 정하는 에너지절약효율기준 이상의 제품을 A, B, C로, 기준 이하의 제품은 D로 한다.

또한 구입 후 5년간의 표준 전기요금과 제품판매가격의 합계도 견본상품에 명시,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都는 올해 6월까지 대형양판점이나 슈퍼마켓, 체인스토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협력점을 모집, 등급구분기준 데이터와 레이블의 견본을 협력점에 배부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5. 2)

② 물부족으로 급수 제한 (타이베이)

대만 타이베이(臺北)시는 최근 물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5월 13일부터 市와 縣의 일부 지역을 5개 지구로 나누어 차례로 급수하고, 5일 중 하루는 단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2단계 급수 제한 조치로 세차장, 수영장 등에 영업 정지를 내렸고, 각 기관, 대기업, 병원 등의 급수량도 10~20%를 줄였다.

한편, 중국의 福州市에서는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대만의 주요 도시에 '먹는물'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금문(金門), 마조(馬祖), 팽호(澎湖) 등에서는 작년 겨울부터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산업생산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들 지역은 중국 복건성(福建省)에 '물 지원'을 호소했고, 福建省에서는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서 대만의 馬祖지구에 사는 동포들에게 음용수를 제공했다(사진은 5개의 고압 펌프를 이용해 선박에 물을 채우는 모습).



(인민망 일본어판, 5. 5 / 5. 8)

3] 쓰레기 불법투기 막기 위해 쓰레기봉투 유료 보급 (독일: 브레멘市)

독일 브레멘市에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격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다. 한 주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다른 한 주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한다. 市는 재활용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비닐봉투는 우체국과 재활용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각 가정별로 市에서 제공한 플라스틱함을 통해 폐기하며, 요금은 2개월마다 징수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원쓰레기나 파티 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2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쓰레기의 양이 많아 쓰레기 투입함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市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별도로 비닐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했다(사진 참조). 추가쓰레기 비닐봉투는 70리터 부피로서, 가격은 5.5유로이다. 이 비닐봉투는 시내 복권판매가게와 市재활용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Bremer Nachrichten, 4. 17)

4] 관리비용 절감 위해 버스를 '적색'으로 통일 (런던)

영국 런던市는 앞으로 3년 안에 시내의 모든 버스 색깔을 적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市는 빨간색 버스가 다른 밝은 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색 횟수가 적어 버스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런던관광위원회(London Tourist Board)도 빨간색 버스가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것으로 판단,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런던市의 버스 6,000대 중 적색이 아닌 버스는 300대뿐이다.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 Journal, 2002. 5)

5] 버스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 대중교통운영기관인 'Chicago Transit Authority(CTA)'는 공사 버스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또는 버스정류장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 이들 위반차량에 벌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미 작년 2월에 개·보수를 위한 간선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도로상에서의 주차금지' 정책과 함께 한시적 조치로 고려된 바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버스에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5대의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추가로 더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市는 이 계획으로 버스 주행속도 향상 등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suntimes.com/output/news/cst-nws-cta08.html)

6] 이용률 낮은 지하철 노선에 대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 전개 (뉴욕)

미국 뉴욕市 지하철운영기관은 이용률이 낮은 'V노선'으로 승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관은 'V노선'의 장점을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각각 설명하는 안내서를 다량 배포하고, 역사(驛舍) 내에 이용안내 포스터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주요 신문과 케이블 TV에도 광고를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작년부터 시작된 「'V노선' 이용 증진 및 'E노선'과 'F노선'의 혼잡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V노선'을 이용해도 통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V노선'은 완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운행속도가 늦어 현재 이용객이 최대 수용가능한 승객 규모의 약 49%에 머물고 있다.

(www.nydailynews.com/2002-05-09/News_and_Views/City_Beat/a-150258.asp)

7]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요금 결제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MTC)'은 Bay 지역에서 카드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1단계 「TransLink」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1단계 프로그램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총 4,300장의 「TransLink」 카드를 배포,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21개의 대중교통시스템 중 6개의 주요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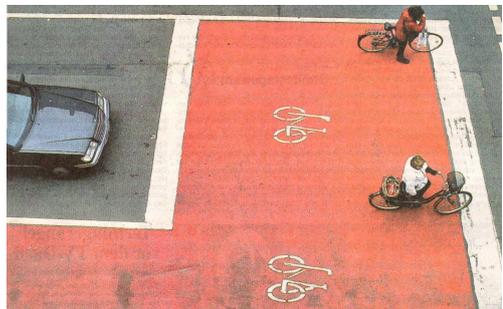
시는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이 프로그램을 시스템 전체로 확대하고, 대중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지불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MTC는 이러한 통합형 요금체계 계획을 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통행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www.masstransitmag.com/script/search.asp?SearchSiteURL=/articles/2002/mt_05-02/mt_05-02_04.htm)

8]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자전거 이용 촉진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근 새로운 교통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자동차운전자의 약 25%가 3km 이하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자전거로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운영법을 개정하고, 자전거도로를 위해 1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표시된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사진 참조). 그동안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시민건강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현재 독일에는 6,500만대의 자전거가 있으며,



여가활동으로서 자전거 타기는 축구와 수영을 제치고 65%를 차지하고 있다. (Berliner Zeitung, 4. 25)

9 박물관·동물원 대상 어린이 무료입장권 배포 (일본: 센다이市)

일본 센다이市는 센다이 도시권의 초등·중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에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등 시내 21개 사회교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올 4월에도 도입, 어린이들에게 배포했다. 이 패스포트는 A6 크기의 수첩 타입으로, 초등학교의 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된 올 봄에 초등·중학생 약 13만 4천명에게 배포되었다(사진 참조).



하지만, 이 패스포트는 센다이 도시권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어 시외에서 방문한 어린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패스포트가 없는 권외 초등·중학생은 약 30%인 3,755명으로, 이들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市교향약단, 수영장 등 7개 시설을 주말에 무료 개방하고 있는 야마가타市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외에 거주하는 초등·중학생에게도 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가호쿠신보, 4. 30) (www.kahoku.co.jp)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도로정비조사 실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정비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이번 도로정비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도로정비의 다양한 유형을 시험했는데, 보행로 전방의 장애인 유도 블록띠, 보도 횡단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 유도, 오토바이 주차장에서의 보호, 가로 시설물, 교통신호등의 소리신호기 등이 시험대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의 다양한 유형(감각, 정신, 지능)을 고려해 '장애인의 도로접근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현재 새로운 도로정비계획안이 준비중이며, 이 계획안은 이용자, 시민단체, 市민원부서, 관련기관 대표 등의 합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COM22032002TER.htm)

독일 '숨겨진 빈곤층' 지원 위해 재정지출 확대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실제로는 빈곤층에 속하나, 그동안 복지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른바 '숨겨진 빈곤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매년 3,1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키로 최근 결정했다. 市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8,600명 정도인데, 이번 결정으로 사회복지부필요한 간호대상자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7,200명이 포함, 총 1만 8천여명의 시민들이 2003년부터 市사회복지부를 통해 기본생활권을 위한 권리 청구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부모 및 자녀의 소득여부를 고려했기 때문에, 부모와 결별해 혼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상자에게 월세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는 市주택관리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Frankfurter Rundschau, 4. 25)

영국 定都 2,000년 기념 전시회를 지하철역별로 특성화해 개최 (런던)

영국 런던지하철 및 런던박물관은 런던 定都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런던-어제와 오늘'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런던박물관은 전시내용을 준비하고, 런던지하철은 전시공간을 제공하는데, 현재까지 전시회가 개최중인 지하철역은 웨스트민스터驛, 레스터스퀘어驛, 세인트폴驛 등 3곳이다.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웨스트민스터驛에는 정치 풍자를 담은 전시물이, 극장이 밀집된 레스터스퀘어驛에는 각종 예술작품이, 지난 200년간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던 세인트폴驛에는 박제 맹금류가 각각 전시중이다. 주최측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역의 유래와 특성에 맞춰 전시내용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Metro, 4. 24)

④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원하는 곳에서 찾아가는 도서대출서비스 실시 (일본: 요코스카市)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시는 최근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시립 도서관에 있는 책을 예약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이러한 도서대출서비스는 縣內 지자체로서는 처음이다. 市는 도서 예약·대출·반납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4개 도서관 외에 평생학습센터 도서실 등 시내 총 13곳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일반가정의 PC, 휴대전화 또는 13곳의 창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시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필요한 도서를 검색·예약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측은 예약한 책이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본인에게 전화로 연락해준다.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市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시민들의 독서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www.tokyo-np.co.jp/00/kgw/20020504/lcl_kgw_002.shtml)